

매화시를 통해 본 조선조 문인의 자연관과 심미 인식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성리학적 자연관과 매화의 역리(易理) 상징
3. 조선시대 매화시의 심미 유형
 - (1) 출처의 고민과 진은(眞隱) 회구
 - (2) 세속의 부정과 선계(仙界) 추구
 - (3) 유희의 정신과 장편 연작시 창작
4. 맺음말

1. 머리말

매화는 동아시아의 문학과 예술의 주요 제재로 은일과 지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예로부터 매화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으로 여겨져 왔으니, 봄철 24차례의 꽃소식을 일컫는 ‘이십사번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꽃이 바로 매화이다.¹ 이처럼 추운 겨울을 견디며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는 생태적 특성이 사대부의 고귀한 덕목인 은일과 지조의 상징으로 표상되면서 매화는 더욱 중시되었다. 매화는 또한 성리학적 사유와 결합하여 ‘생생지리(生生之理)’를 가장 잘 구현한 식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인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매화를 감상하는 데에도 여러 방식이 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화를 감상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 천기(天機)가 드러남을 완상하며 꽃송이 하나하나가 태극(太極)임을 즐기는 이들이 있으니, 주렴계(周濂溪)·소옹(邵雍)과 같은 여러 현인(賢人)이 그들이다. 저 고결하며 맑고 차가운 운치(韻致)를 취하여 지기(知己)라고 여기며 즐기는 자들이 있으니, 임포(林逋)의 무리가 그들이다. 참된 빛깔을 감상하고 맑은 향기를 취하여 시흥(詩興)을 북돋으며 즐기는 자들이 있으니, 시인과 묵객(墨客)이 그들이다. 나라에 으뜸가는 미색을 가까이 두고 풍류(風流)를 견딜 수 없어서, 금빛 휘장을 걷어 올리고 고주(羔酒)를 따르며 즐기는 자들이 있으니, 공자(公子)와 왕손(王孫)이 그들이다. 눈 속에서도 봄을 누리고, 잎이 없는데도 꽃이 핀다고 기이하게 여기

¹ 二十四番花信風은 小寒에서 穀雨에 이르는 120일 간 5일에 해당하는 매 候에 차례로 24번 꽃이 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맨 처음 등장하는 꽃이 매화이다.

는 이들이 있으니, 평범한 사내들의 속된 안목이 그러하다.²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매화를 보며 취하는 바가 또한 다르다. 천기를 감상하며 태극의 이치를 보는 주렴계나 소옹 같은 성리학자가 있고, 고결하고 차가운 운치를 보며 지기로 여기며 즐기는 임포 같은 은자가 있다. 매화의 빛깔과 향기를 즐기며 시흥을 돋우는 문사가 있고, 미색을 끼고 금빛 휘장 속에서 귀한 술을 마시며 즐기는 귀족이 있는가 하면, 눈 속에서 봄소식을 전하고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사실을 신기해하는 범부도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사대부는 문인이자 학자로서 자신의 경륜을 바탕으로 치군택민(致君澤民)을 사명으로 삼는 중세 지식인이다. 성리학자, 문인, 은자란 곧 사대부가 자신이 속한 시대와 처지에 따라 달리 부여되는 명칭이라 할 것인바, 김창협(金昌協)의 위의 언급은 곧 사대부가 어떠한 처지에서든 늘 매화를 가까이 함을 말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에 옛 선비들은 매화를 가까이하고 즐겨 시의 소재로 즐겨 삼았으니, 그 중에는 수십 수 이상씩 남긴 문인들도 적지 않다. 이들 매화시에는 사대부 문인의 관물(觀物) 의식과 심미 인식이 잘 담겨져 있는바, 매화시는 옛 선비들의 자연관과 생명 사상을 살펴보는 유용한 표지(標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리학적 자연관과 매화의 역리(易理) 상징

봄의 전령으로 여겨진 매화는 송대에 이르러 성리학의 확립과 더불어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유학에서 자연은 음양의 기로 되어 있으며 최초의 기가 ‘태극(太極)’으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정주(程朱) 이후의 성리학자들은 ‘태극’을 ‘리(理)’로 보면서, 그 리로서의 태극이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다. 태극은 이미 원시 유학에서도 우주의 근원이라고 믿어졌지만, 그것을 ‘리(理)’ 특히 ‘우주의 궁극적 원리’로 이해한 것은 성리학의 사상 체계 속에서도이다.³ 송대 신유학의 개조로 일컬어지는 주돈이(周敦頤)는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어 태극으로부터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도해하여 ‘태극도(太極圖)’를 그리고 이를 해설한바 있다.

그런데 만물의 시원이 되는 태극의 표상은 대개 매화에 비유되었으니,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는 속성에서 만물을 낳는 생생지심(生生之心)을 유비했던 것이다. “生生을 일러 易이라 한다(生生之謂易)”라 했거니와, 생생지심은 곧 역(易)의 이치에 다름 아니다. 선천상수학(先天象數學)을 대성한 것으로 알려진 소옹(邵雍)이 이에 기반한 점복술(占卜術)을 창안하고 이를 ‘매화역수(梅花曆數)’라 명명한 것은 매화가 역리(易理)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음을 잘 말해준다.

² 『三淵集』 권36, 「漫錄」 “看梅花有許多般, 有玩其天機呈露, 箇箇太極而樂者, 周邵諸賢是也. 有取夫孤標冷韻, 託爲知己而樂者, 林逋輩是也. 有賞眞色挹清芬, 助發詩興而樂者, 詞人墨客是也. 有親近國艷, 不耐風流, 褰金帳酌羔酒而樂者, 公子王孫是也. 有以雪中能春, 無葉有花爲可異者, 凡夫俗見是也.”

³ 윤사순, 「유학의 자연철학」, 『조선유학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1998.

매화를 대하여 역리를 떠올리는 것은 그 전통이 유구했던바, 고려 후기 원나라에서 귀화한 설손(偲遜, ?~1360)은 화병에 꽃힌 매화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병중에도 옥설 같은 피부의 선녀를 어여삐 여겨	病愛仙人玉雪肌
걸음 못 걸을까 근심했지만 또한 옮겨올 수 있었네.	愁無健步也能移
임포는 끝내 서호의 낙을 누렸고	林逋遂有西湖樂
하손은 도리어 동각의 시를 지었지.	何遜還成東閣詩
벼루랑 병풍이 서로 비추고 있고	小研虛屏供自照
성긴 등불 기운 달 모두 잘 어울린다네.	疏燈斜月摠相宜
<u>고요한 가운데 선천의 획을 마음으로 깨닫노니</u>	<u>靜中忽契先天畫</u>
<u>가지 끝 몇 송이 꽃이 이를 먼저 알았구려.</u>	<u>已被枝頭數葉知⁴</u>

설손은 원 순제(元順帝) 때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학문이 깊고 문장에 뛰어나 단본당 정자(端本堂正字)로 뽑혀 황태자에게 경전을 가르쳤던 인물이다. 1358년(공민왕 7)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피해 고려로 오게 되었는데, 황태자를 가르칠 때 원나라에 가 있던 공민왕과 친교가 있었기에 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 시의 미련에서 선천(先天)의 획을 깨달았다고 하며 매화 꽃송이가 이를 먼저 알았다고 한 것은 의미가 심장한 발언이다. 선천의 획이란 소옹이 제기한 선천역학을 말하니, 소옹은 복희씨(伏羲氏)의 선천역(先天易)에 바탕을 둔 선천상수학(先天象數學)을 대성한 인물이다. 소옹이 매화를 완상하던 중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수를 계산하여 미래를 예측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며, 이와 같이 수로써 괘를 얻어 점치는 법을 후세에 관매수(觀梅數)라고 일컬어졌다. 매화는 우주자연의 변화운동의 원리를 드러내는 징표로 여겨졌는데, 설손 시의 이 구절은 매화가 지닌 역리 상징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낸 언급으로 보인다.

위 시를 통해 고려 후기의 매화시에서 이미 역리 상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조선조에 들어와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더욱 강화된다. 다음은 영남 사림파의 종주로 알려진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동짓날에 매화를 읊은 시이다.

<u>우물 밑에 숨은 양(陽)이 칠일 만에 돌아와</u>	井底潛陽七日回
<u>만물의 원기가 찬 매화에 스며들었구나.</u>	一元消息透寒梅
<u>빛나는 하늘의 마음 가지에 가득 꿈틀대고</u>	天心昭灼盈枝動
무성한 봄의 소식 마음 가득 펼쳐지네.	春信丰茸滿意開
향기와 그림자가 은은히 쾌안에 스며들고	香影微微侵斐几
정기와 신태는 자주 금술잔에 잠기는구려.	精神故故蘸金杯
<u>이로부터 생생(生生)의 이치 자세히 완상할진대</u>	<u>從茲細翫生生理</u>
<u>다만 주역 부연할 재주 없는게 한이로다.</u>	<u>只恨曾無演易才⁵</u>

⁴ 『東文選』 권16, 「病中詠瓶梅」 其一.

⁵

우물 밑에 숨은 양이란 동지에 양기가 움트는 것을 말하고,⁶ 칠일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양기가 다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됨을 말한다. 여기서 일(日)은 월(月)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월(初爻에 음이 처음 나타나는 姤卦에 해당함)부터 양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다 없어졌다가, 7개월 만인 동짓달 11월(초효에 양이 처음 나타나는 復卦에 해당함)에 이르러 양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여 회복됨을 말하는 것이다. 수련은 곧 동짓달에 양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 일 년 중에서 가장 추운 동짓달 만물이 얼어붙어 있는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함을 매화를 통해 본다는 것이다. 함연에서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마음(天心)⁷을 담은 봄소식을 매화가 펼쳐 보인다 하였고, 경련은 방안에서 분배를 대하여 매화의 향기와 그림자, 정기와 신태(神態)를 가까이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결연에서는 매화가 펼쳐 보이는 이 생생의 이치를 자세히 살펴 천지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역』의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는데 재주가 모자란다는 아쉬움으로 끝맺었다. **이 매화시는 『주역』에 담긴 생생지리(生生之理)를 체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종일관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바, 사림파의 관물(觀物) 의식이 잘 담겨져 있다.**⁸ 봄의 도래를 뜻하는 동지는 양이 태동하는 사건으로 보아 사대부에게 각별하게 여겨졌는데, 매화는 그 표상으로 여겨졌음을 위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동짓날 매화시를 읊는 시적 전통은 조선시대 내내 뉘뉘히 이어졌으며, 이때 매화는 무엇보다 역리 상징의 표상물로 인식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김창흡(金昌翕) 형제는 많은

⁵ 『점필재시집』 권2, 「至日詠梅」 其一.

⁶ 『예기』 「月令」에 “동짓달에 우물물이 일렁이기 시작한다.(仲冬之月 水泉動)”라는 말이 나오고, 『일주서(逸周書)』 「周月」에 “동짓달에 미세한 양의 기운이 황천에서 움직인다.(微陽動于黃泉)”라고 하였다.

⁷天心은邵雍이 동지를 읊은 시에서 “동짓날 자시 정각에, 천심은 변함이 없어라. 일양이 처음 움직임에, 만물이 생겨나지 않을 때라네.(冬至子之半, 天心無改移. 一陽初起處, 萬物未生時.)”하고 한 것을 인용한 말이다.

⁸이처럼 매화를 대해 『주역』을 읽으며 역리를 관조한다는 표현은 사림파 문인의 매화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曹偉는 “고요한 밤 한가한 이 홀로 문을 닫아걸고, 등불 아래 주역 펼쳐고 그윽한 헌함 마주했네. 읽노라니 매화꽃 지는 것도 몰랐는데, 책상머리에 날려 떨어지며 흰점을 찍는구나.(夜靜人閑獨閉門, 伴燈看易對幽軒. 讀來不覺梅花落, 飛撲床頭點素痕--「對梅夜讀周易」)라 했고, 奇大升은 “嶺外の 차가운 매화는 謫仙이라, 고고한 향기와 나그네 자취 각각 본연을 보전했네. 어찌하면 달빛 아래 흥금을 터놓고, 복희씨 괘 굿기 이전의 이야기 해볼까.(嶺外寒梅是謫仙, 孤芳羈跡各全天. 何當月下開幽抱, 說到羲皇畫卦前?--「仰次退溪先生梅花詩」)라 했으며, 金富倫은 “음이 다하고 양의 기운 돌아와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니, 모름지기 삼십 육 궁의 봄날을 보게 될지라. 주목 같아 주역에 권점 찍으며 생각을 많이 하노니, 심상하게 시구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오.(陰極陽回梅載吐, 須知三十六宮春. 研朱點易多情思, 不是尋常覓句人--「次後凋兄韻」)”라고 하였다.

매화시를 남겼는데, 이들의 매화시에서는 특히 역리 상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김창흡의 매화시 한 수를 보기로 한다.

합실 하나가 참으로 중묘(衆妙)의 관문이 되니	一閣眞成衆妙關
작은 분매에서 봄이 돌아옴을 절실히 느낀다네.	小盆親切驗春還
천근은 음양이 갈마들어 올라옴에 떠있고	根浮冷煖推移上
향기는 진정(眞精)이 묘합하는 가운데 나오네.	香出眞精妙合間
시상이 어찌 힘쓴다고 이를 수 있는 것이라	詩思詎宜容力就
천기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적 없었다네.	天機會不向人慳
마음 속 모든 걸 꽃 속으로 보낼지니	都將肺腑輸花內
꽃 말고는 아득하여 만사가 한가롭구나.	花外悠悠萬事閒 ⁹

형 김창협과 함께 매화꽃 한 송이가 막 피어난 것을 보고 지은 시이다. 이 시에는 매화를 통해 음양의 동정을 주시하며 태극을 체인하려는 김창흡의 관물(觀物)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분매가 놓여 있는 합실이 중묘(衆妙)의 관문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봄의 기운을 절실히 느낀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함연은 묘리를 깨닫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시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냉난(冷煖)’ 과 ‘진정(眞精)’ 이 대를 이루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진정(眞精)’ 은 『근사록』의 “무극의 진과 이오의 정이 묘합하여 엉겨 있다(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는 구절을 점화한 것이다. 이 문구의 뜻을 묻는 정조의 물음에 규장각 직제학으로 있던 김희(金熹)는 “이(理)이기 때문에 진(眞)이라고 말하고 기(氣)이기 때문에 정(精)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眞精) 두 자는 곧 이기의 오묘함을 형용한 것이지만 이기란 글자로 바꾸어 부를 수는 없습니다.”¹⁰ 라고 하고 있는바, 진정(眞精)의 묘합은 곧 이기(理氣)가 서로 어울려 만물을 태동함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함련 후구의 매화 향기는 이기가 어울려 만물이 태동할 때에 발하는 향기를 비유한 것이다.

후구의 이러한 비유적 의미를 고려하면 전구에서 ‘근(根)’ 이라 한 것 또한 단순히 매화나무의 뿌리를 지칭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서 근(根)은 현근(玄根)을 지칭하며, 음에서 양의 기운이 싹트는 복괘(復卦) 및 동지와 관련되어 소용은 태극(太極)의 오묘한 이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현근이라 하며 중시하였다.¹¹ 그리고 ‘냉난(冷煖)’ 또한 단순히 차갑고 따뜻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음양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음양이 갈마들어 올라온다” 는 것은 음기가 쌓여 있는 속에 양기 하나가 태동하여 올라오는 복괘(復卦) 그 자체를 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창협이 문인으로 예학에 밝고 의리론에 투철했던 이재(李穡, 1680

⁹ 『三淵集』 권6, 「與仲氏同賞梅, 愛其一花孤明」

¹⁰ 『국역 홍재전서』 권64, 「경사강의(經史講義) 1」 ‘근사록(近思錄)’

¹¹ 이창일, 『소강절의 철학--先天易學과 상관적 사유』, 심산, 2007, 60쪽.

~1746)가 동지날 지은 매화시를 보기로 하자.

대지 밑바닥에 쌓인 희미한 양기	地底微陽積
뭇 음기 밀쳐내느라 애쓰는데,	辛苦排羣陰
해마다 자시 정각에 이르면	年年子之半
밀치고 당김 고금이 다르지 않다네.	推盪無古今
만물이 적막하여 생겨나지 않았을 때	萬物寂未生
음양의 소식은 깊이 가라앉아 찾기 어렵지.	消息窄難尋
옛사람은 이를 무엇에 견주었던가?	古人何所況
담미(淡味)와 희음(希音)이라 하였다네.	淡味與希音
매화가 피어남이 없다면	不有梅花發
어찌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으리?	那見天地心
벗이 찾아옴에 다행히 병이 없어	朋來幸無疾
다음날에 함께 임했네.	次日方成臨
매화꽃 옆에서 희역(義易)을 읽고	傍花讀義易
술 마시며 거문고 타던 안회를 떠올리네.	對酒憶回琴
삼자부(三字符)에 깊이 탄복하노니	沉嘆三字符
인(仁)이 아니면 그 뉘라서 이를 감당하리,	非仁孰能任 ¹²

양기가 처음 태동하는 동짓날 매화를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다. 동짓날 자시 정각이면 양기가 처음 싹트기 시작하는데 만물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며, 음양의 소식 또한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 옛사람은 이를 담미(淡味)와 희음(希音)에 견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소옹이 동지를 읊은 시에서 “玄酒味方淡, 太音聲正希”라고 하여, 현주(玄酒)는 맛이 담백하고 위대한 음악은 소리가 희미하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¹³

이처럼 만물이 적막하여 음양의 소식을 찾기 어려울 때 매화만이 천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이를 드러내 주는바, 그 곁에서 『희역(義易)』을 읽으며 음양소식의 이치를 되새기며 천지의 마음을 깨닫는다. 희역은 복희씨(伏羲氏)가 만들었다는 선천역(先天易)을 말한다. 술 마시며 거문고 타던 안회란 송대의 시인인 사방득(謝枋得)의 〈창포가(菖蒲歌)〉에 “맑기는 삼천 제자가 공자의 뜰 앞에 서 있을 적, 안회가 거문고 타고 증점이 비파 뜰 때 천기(天機)가 울리는 것 같네.(淸如三千弟子立孔庭 回琴點瑟天機鳴)”라는 시구를 점화하여 천기의 유행을 체인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마지막 연의 삼자부(三字符)는 송(宋) 나라 유자휘(劉子輝)가 안자(顔子)를 논한 글에서 안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복(復)’자를 『주역』 복

¹² 『陶菴集』 권4, 「至日同必玉, 觀梅得心字」

¹³ 소옹의 「冬至吟」은 “冬至子之半, 天心無改移. 一陽初起處, 萬物未生時. 玄酒味方淡, 太音聲正希. 此言如不信, 更請問庖犧.”(『擊壤集』 권18)인데, 밑줄 친 경련 외에도 이재의 이 시는 전반적인 의상이 소옹의 시와 상당히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괘의 ‘불원복(不遠復)’의 의미로 보았고, ‘불원복’ 세 글자를 부신처럼 독신하였다는 고사를 점화한 것이다. 안회처럼 어진 이만이 만물을 태동시키는 복괘의 ‘불원복(不遠復)’의 마음, 즉 만물을 낳는 하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동짓날을 맞아 이재는 일양(一陽)이 태동하는 복괘의 뜻을 매화에게서 찾고, 소용의 시와 안회에 관한 고사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였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이재가 스승 김창협과 마찬가지로 매화를 무엇보다 태극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김창협과 이재의 매화시에서는 매화를 보면서 우주자연 변화운동의 역리(易理)를 사유하며 태극의 이치를 체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매화에는 의미가 극대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리학적 자연관을 지닌 사대부 문인에게 매화는 우주변화의 운동 원리인 역리의 표상으로 여겨졌고, 이는 역대 사대부 문인이 즐겼던 매화를 애호하며, 이를 즐겨 시화한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3. 조선시대 매화시의 심미 유형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으며 존양(尊陽)을 중시했던 사대부 문인에게 있어 매화는 무엇보다도 역리 상징의 의미가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문인이자 정치가, 또는 예술가로서 다양한 면모를 지닌 사대부 지식인에게 매화가 이처럼 역리의 표상으로만 국한될 수는 없었다. 사대부 문인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처(出處)에 고민해야 했고, 세속을 떠나 선계를 지향하는 초월적 비상을 꿈꾸기도 했으며, 예술적 취향 또한 중시했던 지식인이었다. 이들에게 매화는 역리 상징의 의미 외에 그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양한 심미적 표상으로 작용했던바, 아래에서 그 주요한 양상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출처의 고민과 진은(眞隱) 회구

조선조 전시기에 걸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만큼 매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많은 시를 창작한 문인도 없어 보인다. 그는 무려 72제 107수의 매화시를 지었으며, 이 중 62제 91수는 말년에 그의 손에 의해 따로 책으로 묶었는데, 그것이 『매화시첩(梅花詩帖)』이다.¹⁴ 이황의 각별한 매화 사랑은 그가 말년에 몸이 쇠하여 병으로 누워서 “매형에게 누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하며 매화분을 다른 방으로 옮기도록 했고, 절명하는 순간에도 매화분에 물을 주라고 했던 일화에서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황이 이처럼 많은 매화시를 남겼으면서도, 매화를 역리 상징의

¹⁴ 기태완이 퇴계 이황의 매화시를 번역한 『퇴계 매화시첩』(보고사, 2011)을 출간하면서 머리말에서 제시한 수를 따른 것이다.

표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단 1수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누구보다 성리학의 이치 탐구에 진력하여 조선 성리학을 심화시킨 대철학자로 평가받는 이황이지만, 그의 매화시에는 매화가 역리나 태극의 표상으로 그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의 투철한 관물의식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완물상지(玩物喪志)’라 하였거니와, 이황은 매화에 과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玩物]은 참된 심성의 도야를 해치는 것[喪志]으로 경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신 이황은 매화와 묻고 답하는 형식의 ‘매화문답시(梅花問答詩)’를 5제 12수 남겼다.¹⁵ 매화문답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의 매화시로 여겨지는데, 대개 진퇴의 어려움을 매화에게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의 매화문답시는 이황이 1566년(명종21) 동지중추부사의 소명(召命)이 내리자 병으로 사직하고 예천(醴泉)의 동헌에서 왕명을 기다리면서 지은 시이다.

풍류는 예부터 고산(孤山)을 말하는데	風流從古說孤山
무슨 일로 관아의 뜰로 옮겨 왔는가?	底事移來郡圃間
그대 또한 명예로 그르친 것 알겠노니	料得亦爲名所誤
이 늙은이 명예로 곤욕당한다 비난마소.	莫欺吾老困名關 ¹⁶

나는 관아의 뜰에서 고산을 생각하고	我從官圃憶孤山
그대는 나그네로 구름 계곡을 꿈꾸네.	君夢雲溪客枕間
한 번 웃고 상봉함 하늘이 빌려주었으니	一笑相逢天所借
사립문에 선학(仙鶴)이 없은들 어떠하리.	不須仙鶴共柴關 ¹⁷

위의 시는 이황이 예천의 관아 뜰에 있는 매화에게 물은 것이고, 아래는 매화가 답하는 시이다. 이황이 매화에게 던진 질문은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은 은자의 거처인 고산(孤山)이지 관아의 뜰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대도 명예를 탐했으니 내가 명예를 탐한다고 비난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매화의 대답은 한결 의젓하다. 나는 관아에 머무는 몸이지만 고산을 잊지 않고, 그대는 나그네로 지내면서 퇴계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니, 참된 은일의 정신은 둘 다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연히 만나 즐기는 것도 하늘이 준 기회이니, 임포처럼 학(鶴)이 없

¹⁵ 「得鄭子中書，益歎進退之難，吟問庭梅.--書言陞拜事」 2수, 「陶山訪梅」 2수(『梅花詩帖』에는 「季春辭召命，還陶山，梅花問答」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漢城寓舍，盆梅贈答」 2수, 「季春至陶山，山梅贈答」 2수, 「庚午寒食，將往展先祖墓於安東，後凋主人金彥遇擬於其還，邀入賞梅，余固已諾之。臨發，適被召命之下，既不敢赴，惶恐輟行，遂至愆期，爲之悵然有懷，得四絕句。若與後凋梅相贈答者，寄呈彥遇，發一笑也」 4수가 그것이다.

¹⁶ 『退溪集』 권4, 「得鄭子中書，益歎進退之難，吟問庭梅.--書言陞拜事」

¹⁷ 동상, 「代梅花答」

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¹⁸ 여기에서 매화는 진은(眞隱)의 표상으로 그려졌는데, 이황은 매화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참된 은거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¹⁹ 곧 매화를 친구처럼 아끼며 출처(出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매화와 묻고 답하는 매화문답시가 창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진은(眞隱)’의 삶에 대한 이황의 절실한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은 1569년, 이황의 나이 70세의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다가 고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지은 시이다.

쓸쓸한 나를 짝한 매선(梅仙)이 고마워라	頓荷梅仙伴我涼
소쇄한 객창에 꿈속 혼이 향기롭네.	客窓瀟灑夢魂香
그대 끌고 동으로 가지 못해 한이로세	東歸 ²⁰ 恨未携君去
서울이라 먼지 속에 부디 고이 보전하게.	京洛塵中好艷藏

말 들으니 도선(陶仙)도 우리마냥 쓸쓸한 이	聞說陶仙我輩涼
임 가실 땀 기다려 천향(天香)을 풍기리다.	待公歸去發天香
여보소 우리 님 대할 때나 그릴 때나	願公相對相思處
옥설(玉雪)과 청진(清真)을 고이 잘 간직하세	玉雪清真共善藏 ²¹

잠시 벼슬살이하면서 키우던 분매와 헤어지면서, 이황은 함께 돌아가지 못함을 안쓰러워하고 있다. 분매에게 묻는 시에서 퇴계는 방안에 놓인 분매 역시 고향인 예안 땅 도산에 있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홀로 진세에 남겨짐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답사에서 분매는 도선--도산의 매화--도 지기인 퇴계를 잃고 쓸쓸히 지낼 터이니, 임 돌아오는 날 천향을 풍길 것이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아울러 떨어져 있을 때라도 옥설과 청진을 지닌 도산매의 자태를 간직하여 맑은 행실을 지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래야 훗날 도산에서 상봉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객지 생활에도 분매를 키우고 고향을 돌아가면서 헤어지는 아쉬움을 노래했는바, 매화에 대한 이황의 애정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서울의 이 분매는 훗날 서울에 있는 제자 김취려(金就礪)가 퇴계의 손자 편에 배에 실어 내려 보낸다. 이황은

¹⁸ 임포는 고산에 은거하면서 항상 두 마리의 학을 길렀는데, 혹 손님이 임포를 찾아오면 동자가 학을 날려 알려주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한다.

¹⁹ 이재일, 「이황의 자연시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에서는 매화문답시에 대해 “이황의 매화와 동일시의 극한적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식”(164면)으로 보았다.

²⁰ 원주: 吾鄉禮安 在嶺南最北 陸路由鳥嶺而行 則曰南行 水路由竹嶺而歸 則曰東行 皆指禮安而言也.

²¹ 「漢城寓舍盆梅贈答」, 『퇴계집』(한국문집총간 29), 150~1면. 번역은 신호열 선생이 한 『다시 도산 매화를 찾아』의 것을 따랐다.

이를 받고 그 기쁨을 시로 노래한다.²² 위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화는 퇴계에게 있어 그가 추구해 마지않던 ‘인간 내면의 청진’ 그 자체의 상징이었다”²³고 하겠다.

퇴계가 처음으로 창안한 매화문답시는 기대승(奇大升)·권호문(權好文)·이준(李遵) 등 퇴계의 문인 제자들에 의해 차운되었을 뿐 아니라 후대의 문인 학자들에게 널리 계승되었다. 김수중(金壽, 1624~1701)·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진망(李眞望, 1672~1737)·강박(姜樸, 1690~1742) 등이 여러 수의 매화문답시를 남기고 있는 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매화문답시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지향은 매화를 대상으로 내면의 청진(淸眞)을 되새기며 출처의 의리를 자문자답 하는 것이다. 이는 매화를 대해 출처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면서 진은을 추구하는 심미 인식이 면면히 이어졌음을 말해준다.

(2) 세속의 초월과 선계(仙界) 추구

매화는 사대부 문인에게 애호되면서 ‘매선(梅仙)’, ‘매형(梅兄)’, ‘매군(梅君)’, ‘장인(丈人)’ 등 여러 별칭으로 불리어 졌다. 매화의 청진한 자태를 묘사하는 어구로 ‘빙설옥질(氷雪玉質)’이란 말이 널리 쓰이거니와, 매화는 흔히 얼음이 나 눈처럼 맑고 옥 같은 피부를 지닌 선녀에 비유되기도 한다. 매화를 선녀의 화신으로 보는 것은 그 연원이 오래 되었는데, 유종원(柳宗元)의 『용성록(龍城錄)』에 실려 전하는 ‘나부지몽(羅浮之夢)’의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고사는 수(隋)나라 조사웅(趙師雄)이 나부산(羅浮山)에 갔다가 달빛 아래 어여쁜 미인을 만나 즐겁게 환담을 하고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큰 매화나무 아래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더라는 이야기이다. 나부지몽의 고사는 매화가 일찍부터 미녀의 화신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달빛에 비친 매화를 아름답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매천부(梅川賦)」는 진주의 매천에 살고 있는 하유종(何有宗)을 방문하여 밤에 같이 매천을 유람하면서 만난 매화와의 신유(神遊)를 환몽(幻夢)의 구조로 그린 장편 매화시이다. 작자는 한밤 중 맑은 향기에 이끌려 매화를 만나게 되는데,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이때 밤 눈이 막 개고	于時夜雪新霽
하얀 달은 빛을 흘리네.	素月流光
얇고 맑은 시냇물을 건너서	渡川流之淸淺
지팡이를 짚고 서성대다가,	散予策兮彷徨
빙그레 웃는 모습 만나니	粲然得之

²² 참고로 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脫卻紅塵一萬重，來從物外伴癯翁。不緣好事君思我，那見年年氷雪容?”

²³ 이동환, 「매화와 종교 상징」(『매화』, 생각의나무, 2003.) 48면.

만 곳 아닌 개울가라.	于川之傍
누구나고 묻고자 해도 말이 없는데	欲誰何兮無言
천진한 마음에 기색이 장엄하구나.	羌意眞兮色莊
<u>흰 치마 새하얀 저고리에</u>	<u>縞裙兮練袂</u>
<u>우의에 예상을 입고,</u>	<u>羽衣兮霓裳</u>
<u>눈 같은 살결 매끄럽고 부드러우며</u>	<u>雪肌兮綽約</u>
<u>옥 같은 얼굴 곱고도 날씬하구나.</u>	<u>玉貌兮輕盈</u>
<u>훨훨 날아 은하에 떠서 광한전을 거쳐</u>	<u>飄飄然若泛銀河而歷廣寒</u>
<u>상청에서 못 신선과 어울리는 듯하네.</u>	<u>挹羣僊於上清也²⁴</u>

정도전이 매천의 개울가에서 달빛 아래 만난 매화²⁵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부드러운 살결과 옥 같이 고운 얼굴을 지닌 선녀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달밤에 대한 매화를 선녀의 화신으로 그리는 데서 나부지몽의 고사를 활용했으며, 훨훨 날아올라 상청(上淸)에서 못 신선과 어울리는 듯 하다는 말에서 매화가 선계 유람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진한 자태의 매화는 “인간 세상의 열은 내 병이 될 수 없고, 세속의 누로 내 청진함이 흔들리지 않는다(人間之熱不足以爲吾病兮, 世俗之累不足以撓吾眞也)” 라고 하여 세속을 초탈한 선인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세속을 초탈한 선녀의 화신으로 여겨진 매화는 화분에 심겨져 사대부 문인의 사랑방에 놓여 애호되었다.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의 「매창소월(梅窓素月)」은 이러한 정치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일찍이 찬 매화 옮기고 수초를 캐어 심고	曾移寒樹斲江莎
달빛 맞이하는 창가에 두고 푸른 깃으로 감쌌네.	邀月窓間碧映紗
따스한 옥돌에 피어나는 이내처럼 향기 그윽하고	暖玉煙生香黯淡
<u>흰 치마 바람에 펄럭이듯 그림자 비끼었네.</u>	<u>素裳風舞影敲斜</u>
고운 빛 술잔에 비침에 청주를 무색케 하고	妍窺杯面欺淸聖
차가운 녀 시심에 스며들어 저열한 마음 물리치네.	冷透詩腸退劣魔
<u>선가의 경전 읽고 나서 꽃과 함께 잠들고</u>	<u>讀了仙經花共睡</u>
<u>마음을 씻고 다시 용봉차를 달이려 하네.</u>	<u>洗心聊復試龍茶²⁶</u>

수연은 화분에 매화를 옮기고 그 옆에 강사(江莎)를 캐어 심었다고 했는데, 강사는 강가에 자라는 수초이다. 이를 달빛 드는 창가에 두고 푸른 깃사로 감싸 고이 모셔 두었다. 함연은 달빛에 비친 매화의 자태를 노래했다. 전구는 이상은(李商隱)의 「금슬(錦瑟)」 시에서 “남전에 날이 따듯하니 옥돌에 이내 피어나네(藍田日暖

²⁴ 『三峰集』, 권1.

²⁵ 이 매화는 고려말 문하시랑찬성사를 지낸 河楫이 낙향 후 심었다는 매화로 진양하씨 종택에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로 알려져 있다.

²⁶ 『濯纓集』 「四十八詠廣韻應製--其一」

『生煙』”란 구절을 용사해서 매화의 하얀 꽃송이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를 미옥(美玉)에 생긴다고 하는 이내에 비유하였다. 후구에서는 매화의 흰 꽃잎이 달빛에 비쳐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습을 말하였다. 경련은 매화와 함께 즐기는 풍정을 노래 했는데, 분매를 대해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 미련에서는 매화와 함께 있노라니 신선의 세계의 노년 듯하고, 질 좋은 용봉차를 마신 듯 청량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히 선가의 경전을 읽고 꽃과 함께 잠든다는 전구에서 매화를 유선(遊仙)의 매개물로 인식하고 있는 작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희매(戲梅)」는 매화를 소재로 지은 장편의 유선시로 이채로운 작품이다. 작자는 매화 곁에서 술을 마시다 꿈에 매화를 만나는데 매화는 세속을 떠나 홀로 살며 정절을 지키는 여인으로 그려져 있다. 이에 매화의 고독한 처지를 동정해 매화를 위해 천상의 궁궐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진 매화를 찾다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작자와 매화가 의지하며 지내다가 매화를 잃고 꿈에서 깨어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바람에 드높이 나부끼는 노을 빛 옷자락	飄飄高舉紫霞裾
맑은 이슬을 마음껏 마시고 구름을 누대로 삼으니,	飲盡沆瀣雲爲臺
인간 세상 팔만 칠천 년이	人間八萬七千秋
번개 치고 우레 따라 울리는 순간도 못 된다네.	不啻驚電隨風雷
맑은 향기 갑자기 가득 풍겨와	清香袞袞驀地來
나의 콧등 엄습하니 정을 금하기 어려구나.	襲我鼻面情難裁
<u>그대는 나를 의지하고 내 그대 의지해</u>	<u>君依於我我依君</u>
<u>봉래산에서 온 신선을 짝하여 너울너울 춤추네.</u>	<u>仙侶踟躕自蓬萊</u>

... <중략> ...

몸 돌려 너를 봄에 간 곳을 알지 못하겠거니	回身見汝不知處
<u>네가 나이고 내가 매화일런가?</u>	<u>爾爲我耶吾爲梅</u>
부질없이 읊조리고 화표주로 날아 오니	浪吟飛來華表柱
평원이 자욱이 깔려있고 큰 산은 허물어졌구나.	平原靄靄丘山頽
상전이 벽해가 되고 바다가 육지로 변했으니	桑田爲海海成陸
곤명의 검은 재처럼 다 싸늘하게 변했구려.	冷盡昆明千劫灰 ²⁷

꿈속에서 만난 매선(梅仙)과 더불어 천상의 궁궐에서 노니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자하(紫霞)는 선궁(仙宮)에 깎다고 하는 붉은 놀을 말하고, 향해(沆瀣)은 밤에 맺힌 맑은 이슬을 이르는 말이다. 신선이 봄에는 아침노을을 삼키고 겨울에는 밤이슬을 마신다는 말이 있으니, 작자는 매화와 함께 신선이 되어 노닐고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의 수만 년이 이곳에서는 찰나에 불과한데, 매화와 서로 의지하며 너울너울 춤을 춘다고 했다.

아래 대목은 꿈에서 깨어나 갑자기 매화가 사라져 간 곳을 알 수 혼자 인간 세상

²⁷ 『河西集』 권4.

으로 돌아옴을 말한 것이다. 신선술을 배워 학(鶴)으로 몸을 바꾸어 고향의 성문 화표주(華表柱)에 내려와 앉았다는 정령위(丁令威)의 고사를 용사했다. 유선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인간 세상은 상전벽해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매화는 신선으로 표상되며 작자는 매화와 함께 하는 유선의 체험을 서사적 구조를 갖춘 장편시를 통해 실감나게 그려내었다.**

위에서 매화를 선녀로 그리고, 이를 통해 유선의 체험을 노래한 시를 몇 수 보았다. 여기에서 매화는 흰 치마를 입은 미인으로 나타나는데,²⁸ 이는 백매(白梅)를 형용한 것이다. 백매에 비해 홍매(紅梅)는 그 붉은 빛으로 인해 흔히 신선이 복용하는 단약으로 그려진다. 19세기에 활동한 여항 화가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은 홍매도(紅梅圖)를 즐겨 그렸는데, 그가 홍매를 그리고 나서 쓴 제화시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신선이 영약(靈藥)을 씻는 곳에	仙人洗藥處
단액(丹液)이 흐르는 샘물에 드네.	丹液入流泉
초목이 모두 멍청히 서있는데	草木皆癡鈍
오직 매화가 먼저 기(氣)를 얻네.	惟楫得氣先 ²⁹

홍매의 붉은 꽃잎을 신선의 불노장생약인 단액(丹液)에 비유하여 겨울철 초목이 잠든 계절에 매화만이 홀로 천기(天氣)를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백매와 함께 홍매 또한 신선 세계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 몇 수의 시를 통해 사대부 문인에게 매화는 유선의 경지에서 노니는 주요 매개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유희의 정신과 장편 연작시 창작

매화를 애호한 조선시대 사대부 문인은 장편 연작시를 통해 매화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리기도 하였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매화 그림을 보고 20운 장편시(「畫梅二十韻, 奉教製」)를 통해 매화의 자태를 다각도로 묘사했으며, 노사신(盧思愼)의 집에 있는 매화를 보고는 무려 40수의 연작시를 짓기도 했다.(「盧宣城宅梅花詩」) 계유정난의 패도정치에 반발해 평생을 방랑과 기행으로 일관한 김시습(金時習, 1435~1493) 또한 「探梅」라는 제목의 14수 연작시를 남겼으며, 중종 연간의 권신으로 지목되는 김안로(金安老, 1481~1537)는 매화 그림을 보고 10수의 연작시 두 편을 짓기도 하였다.

²⁸ "옥 같은 뺨엔 봄뜻이 살짝 머금어져 있고, 흰 치마엔 싸늘한 달빛이 흠뻑 담겨 있네.(玉頰愛含春意淺, 縞裙偏許月華涼)라는 陳漣의 시구나 "황홀할사 나부산 선녀 내려와, 밤중에 흰 소매로 나를 맞이하는 구나.(恍然羅浮下, 縞袂夜相迎)"라는 김창협(金昌協)의 시구에서도 매화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은 미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²⁹ 조희룡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조희룡전집』(한길아트, 1999.) 41쪽.

조선 전기부터 매화를 노래하는 연작시 창작의 전통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거나와, 조선 후기 들어서는 연작시 창작이 더욱 성행한다. 그 중 주요한 작품만으로도 김창흡의 「송백당영매(松栢堂詠梅)」 16수,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분매(盆梅)」 40수와 「송매(送梅)」 10수, 매사(梅社) 동인의 200수 매화시,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일파가 윤희매(輪回梅)를 읊은 19수의 매화시, 신위(申緯, 1769~1845)의 「매화삼십육영(梅花三十六詠)」 36수, 정학연(丁學淵, 1783~1859)의 「매화삼십수(梅花三十首)」 30수, 조병현(趙秉鉉, 1791~1849)의 「매사(梅詞)」 30수, 이만용(1792~미상)의 「주필차북사매화시삼십수(走筆次北社梅花詩三十首)」 30수, 이남규(李南珪, 1855~1907)의 30수 연작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 후기의 매화연작시가 대부분 시사(詩社)의 모임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매사 동인과 이덕무 일파를 비롯하여 정학연, 이만용 등의 매화연작시가 모두 시사의 모임에서 지어진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18세기 영정조 연간에 이르면 양반 문인 외에 서얼과 중인층의 문예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시사 모임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매화는 주요한 시제가 된다. 그리고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매화는 전통적인 은일과 지조의 표상에서 벗어나 하나의 심미적 완상물로 애호되고 있는데, 이는 성리학적 사유의 퇴조와 맞물려 있는 현상으로 주목된다.

‘빙등조빈연(冰燈照賓筵)’이라 이름 붙인 노론 계열 문사들의 매화시, 매사(梅社) 동인의 매화시, 이덕무 일파의 납매시(蠟梅詩) 창작 등은 이전 시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경향이였다. 빙등조빈연의 동인들은 문사를 강론하면서 겨울 밤 냉수를 얼려 얼음 등을 만들어 놓고 그 빛에 비추어보며 매화를 완상하는 빙등조빈연(冰燈照賓筵)을 가지고 시를 지었다. 빙등조빈연은 이인상(李麟祥)·이윤영(李胤永)·오원(吳瑗)·오찬(吳瓚)·김상묵(金尙默)·오재순(吳載純)·오재유(吳載維)·오재홍(吳載弘)·김유문(金孺文)·윤명동(尹冕東)·송문흠(宋文欽)·김무택(金茂澤)·권진응(權震應) 등 노론 계열의 문인이 가진 모임이였다. 매사의 동인들은 매화가 필 때부터 질 때까지 7차에 걸쳐 시회를 갖고, 200수의 매화시를 짓기도 하였다. 매사는 조재호(趙載浩)·조의진(趙宜鎭)·조유진(趙維鎭)·이봉환(李鳳煥)·남옥(南玉)·채희범(蔡希範) 등 경화세족과 서얼 문사들이 가진 시회였다. 그리고 후기 사가로 유명한 이덕무·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일파는 밀랍으로 직접 윤희매를 만들고 이를 감상하며 연작시를 지었다. 18세기 시사의 동인들은 밀랍으로 매화를 만들며 즐기거나, 얼음 등불에 비추어보며 완상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매화를 향유하였는데, 그 기저에는 일종의 유희 정신이 깔려있다.³⁰ 이들에게 매화는 더 이상 역리를 상징하거나, 은일을 희구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18세기 시사의 동인에게 매화는 ‘미선일치(美善一致)의 관점’에서 벗어나 심미적 대상으로 향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매화시에는 전통적인 역리 상징의 자장이 해체되는 조짐이 감지되며, 이는 성리학적 관물 의식의 퇴조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³⁰ 이에 대해서는 신익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한국시가연구』 15집, 2004) 참조.

여기에서는 이들 시사에서 지어진 시를 각기 한 수씩 보기로 하겠다. 먼저 빙등조빈연의 광경을 읊은 이윤영의 시 한 대목이다.

추위를 무릅쓰고 매화 꽃송이 함께 하여	凌寒梅蕊並
밤을 비추는 구슬의 광채와 빛을 다툰다.	照夜珠輝爭
넘실넘실 환한 빛의 바다 배를 띄울 만하고	汎汎空明船
맑디맑은 푸른 물결 갯끈을 씻을 만 하네.	濯濯滄浪纓
주머니의 반딧불인 양 그 빛 주울 수 있을 듯	囊螢光可掇
거울 속의 꽃과 그 자태 똑같아 보이네.	鏡花影欲平
비로소 알겠노라, 청명함 지니려면	始覺清明在
응당 비루한 싹 없애야 하리.	應消鄙吝 ³¹

매화의 하얀 꽃송이와 얼음 등불의 하얀 빛이 어우러져 방 안 가득 환한 빛을 펼쳐놓는다. 환한 빛의 바다엔 배라도 띄울 수 있을 듯 하다. 흡사 명주 주머니 속에 담긴 반딧불인 양, 거울 속에 비친 하얀 꽃처럼 환상적인 밝음이다. 이처럼 순수한 빛은 세속의 비루함을 넘어선 청진함 그 자체이다. 빙등조빈연에서 얼음등이 비추는 손님(賓), 곧 매화는 얼음 등불의 환상적인 빛에 짝하는 고결한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음은 매사에서 이봉환이 지은 시로 꽃잎이 떨어지는 낙매(落梅)를 노래한 것이다.

두터운 정 다투어서 날이 갈수록 쇠미하게 만드는가	濃情誰遣日趨微
번화했던 곳이 먼저 손에 닿아 날리네.	繁處先看觸手飛
빈 등걸 꺾어내고 태고로 쌓이는데	擁得虛槎蟠太古
아직 남아있는 꽃받침 남은 빛 떨치네.	結留高萼奮餘輝
그윽한 향기 마음을 다해 핀 것 어여쁘네	終憐馥郁開心盡
청진함 간직한 채 무덤으로 돌아갈 것 생각하네.	永抱清真到骨歸
쇠하고 흥하는 한 마당에서 세상 보는 눈 배우나니	衰旺一場觀世眼
왔다 가는 공과 색의 이치가 곧 천기라네.	往來空色只天機 ³²

이 시에 대해 조재호는 함연이 ‘기세가 강직하고 꺾끗하다[飢麟逾峻]’는 평을 달고, 경련에 대해서는 ‘한 번 읽고 세 번 탄식하게 되니 지사가 눈물을 떨군다 [一唱三嘆 志士堪涕]’고 했다. 함연은 지는 꽃잎이 허공을 날아 태고로 돌아가는 순간과 함께 아직 가지에 맺혀 있는 꽃받침의 의젓한 자태를 대비시켜 그렸다. 이는 곧 의젓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로 ‘강직하고 꺾끗한’ 모습이라 하겠으니, 이러한 의상을 염두에 두고 향장주준 하다 평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련에서는 마치

³¹ 李胤永, 「賦氷燈次石鼎聯句詩韻」, 『丹陵遺稿』(『韓山文獻叢書』2)

³² 『梅社五詠』 「次持卿落梅詩韻」(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막까지 그윽한 향기를 발하고, 죽는 순간에도 청진한 자태를 잃지 않는 것으로 낙매를 그리었다. 경련의 평은 매화의 깨끗한 자태를 보고 세상사의 흥망에 연연하지 않고 고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지사의 표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연에서 작자는 매화꽃이 피었다 지는 모습에서 세상사 흥망성쇠의 이치를 떠올리고,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이치로 모든 것이 곧 천기(天機)의 유행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매화를 보며 역리를 말하지 않고, 색즉시공의 불교 이치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덕무가 지은 윤희매시이다.

일찍이 벌집에서 맺은 윤희의 인연으로	蜂衙夙結轉輪緣
쌍쌍이 짝을 지어 자매로 눈앞에 나타났네.	現了雙雙姊妹聯
만약에 참꽃이 피어 보게 되면	若使眞花開着眼
해맑은 같은 기상에 손자인 양 예뻐하리.	澄鮮一氣肖孫憐 ³³

윤희매란 명칭은 곧 윤희로 이루어진 매화라는 뜻이니,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서 저장하고, 밀랍이 만들어지는 벌집이야말로 윤희매에게 있어서는 태실이 된다 할 것이다. 그 태실을 기반으로 하여 줄줄이 태어난 울망줄망한 꽃망울은 흡사 자매처럼 보인다. 그리고 꽃에서 꿀로, 꿀에서 밀랍으로 윤희하는 것이기에 참꽃은 윤희매에게 할아버지뻘이 된다. 진짜 꽃이 본다면 손자인양 예뻐한다는 말은 외양의 흡사함을 넘어서 이러한 윤희전성(輪回轉成)의 이치를 드러내었는바, 이 역시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19세기에도 매화 연작시 창작이 성행하였으니, 신위의 36수 연작시, 정학연의 30수 연작시, 조병연의 30수 연작시, 이만용의 30수 연작시, 이남규의 30수 연작시 등이 이어졌다. 이 중 정학연과 이만용의 매화연작시는 19세기의 중요한 시사였던 두릉시사(杜陵詩社)와 북사(北社)에서 지어진 것이다.³⁴ 매화를 제재로 장편 연작시를 짓는 전통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 후기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에서 시부(詩賦) 100편을 짓게 하여 인재를 가려 뽑는 백편과(百篇科)가 있었는데, 당시 매화를 제재로 삼아 시를 짓는 일이 성행했던 것과 맞물려 매화시 100편을 연작시로 짓는 경향이 생겨났다. 북송(北宋)의 진관(秦觀,

³³ 『국역 청장관전서』 권10.

³⁴ 두릉시사는 정학연의 거처가 있던 한강 양수리 부근에서 열렸던 시사로 정학연·丁學游 형제, 朴鐘林·朴鐘儒 형제, 洪吉周·洪顯周 형제, 洪羲人·洪成謨 부자, 尹正鎭, 李明五·李晚用 부자, 具行遠, 申緯, 金益鼎, 尹定鉉, 洪祐健, 洪祐吉, 申弼永, 金尙鉉, 徐有英 등의 주요 구성원이다. 그리고 북사는 金適根의 삼청동 옥호정사에서 열렸던 시회로 白蓮社라고도 칭한다. 김유근과 그의 외질 南秉哲을 비롯하여 權敦仁, 趙斗淳, 洪顯周, 신위와 그의 제자 朴永輔, 외증손 한치요, 흥종응·흥종서 형제, 남상교, 정학연과 그의 자질인 정대림, 정대번, 이만용·이지형 부자, 김정희의 문인인 이상적, 조희룡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1049~1100)이 지은 7언 율시의 매화시 100편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원대와 명대에 이백옥(李伯玉), 장도흡(張道洽, 1205~1268), 풍자진(馮子振, 1257~?), 석명본(釋名本, 1263~1323), 문징명(文徵明, 1470~1559), 이확(李確) 등에 의해 꾸준히 매화 연작시가 창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일본에 과급되어 시작(詩作)의 한 경향을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³⁵

이러한 경향은 조선의 문인에게도 일찍부터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지만³⁶, 신위는 「매화삼십육영(梅花三十六詠)」의 서문에서 자신의 매화시가 「매화백영」의 형식을 따랐음을 분명히 언급했으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연작시를 지었다. 매화의 각종 자태를 이처럼 거편의 연작시로 읊는 것은 신위와 친밀하게 교류하며 두릉시사에서 함께 활동한 정학연과 이만용의 매화시 30수에서도 확인된다.³⁷ 이들의 매화 연작시는 매화의 다양한 품종을 제재로 하거나, 특정한 장소나 경물에 처한 매화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노래한 것으로 다분히 유희적인 성향의 시작이다.

일찍이 송대의 문인 장자(張鑑)는 자신의 집 주변에 매화나무 삼백여 그루를 심어 놓고 여기에 옥조당(玉照堂)이란 별채를 지어놓고 매화를 감상하며 매화와 잘 어울리는 것·잘 맞지 않는 것·영예로운 것·굴욕스러운 것의 네 가지 제목에 총 58개 조목을 마루 위에 걸어두고 경계로 삼았다.³⁸ 매화에 대한 애호가 성행하면서 특정한 경물과 결부된 매화의 운치를 감상하는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19세기에는 이러한 유희적 성향의 매화 연작시 창작이 널리 성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18세기 이후 시사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고 여러 시사에서 매화를 독특한 유희의 대상으로 향유하면서 연작시를 짓는 경향이 성행하였음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유희 정신은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와 함께 성리학적 관물 의식이 쇠퇴하고, 도시적 감수성에 입각한 예술적 심미 취향이 우세해진 변모를 반영하여 나타난 심미 경향으로 이해된다.

4. 맺음말

³⁵ 池田溫, 「从《梅花百咏》看日中文学交流」, 『浙江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33卷, 浙江大学出版社, 2003.

³⁶ 강희맹(姜希孟)이 「詠梅竹」 중 '風梅'·'月梅'·'雨梅'·'雪梅'라는 제목으로 바람, 달, 비, 눈과 함께 한 매화의 모습을 그린 것이 그 일례이며, 이밖에도 여러 문인들이 유사한 제목의 매화시를 한두 수씩 남기고 있다.

³⁷ 김지영, 「丁學淵의 매화 연작시 「梅花三十首」에 대한 一考」, 『장서각』 2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³⁸ 이황 또한 "장약재(張約齋, 장도흡)은 옥조당(玉照堂)에 매화 삼사백 그루를 심었으니, 대개 맑은 흥취를 지극히 즐겼기에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계장산사(溪莊山舍)에 매화를 심은 것이 겨우 십여 그루인데, 장차 점차 늘려 백 그루에 이르고자 하기에 말한 것이다.(張約齋於玉照堂, 植梅三四百株, 蓋絕致清賞, 不厭其多也. 余之植梅於溪莊山舍, 僅十餘本, 將漸廣以至百本也, 故云--「奉酬金慎仲詠梅, 三絕句一近體)」"라고 하여 장도흡의 옥조당 매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